

한국금융학회 2015년 춘계 정책심포지엄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
금융인프라를 중심으로』

축 사

2015. 4. 9.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 장 최 운 규

먼저 한국금융의 발전을 위해 **한국금융학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심포지엄**에 지난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홍범** 한국금융학회 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국이 제안한 **AIB**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그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프라’**라는 **핵심가치**를 전면에 부각시킨 점이 주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융산업 발전 역시 **탄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금융인프라**는 **한국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그런 의미에서 동 심포지엄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금융산업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거의 매일 보도에서 접하고 있는 **핀테크**와 **전자금융**은 현재까지는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장래에는 **펀딩,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부문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비트코인** 및 전자화폐의 사용,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인터넷 전문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인해, 금융업의 지형도와 행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금융소비자의 결제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자금중개를 촉진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시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리스크 증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간 경쟁격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핀테크 등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국가간 경계가 옅어지면,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화폐창출 및 금융중개는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새로운 금융환경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법률 및 규제체제 정비, 대외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강화, 개인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과 지급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금융의 행태변화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을 이행하는 것도 한국은행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금융학회 회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여러분!

제조업의 경우, 우리가 선진국 기술수준을 따라잡은 단계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의 경우, 아직 전통적 금융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전자금융 환경에 적응하여 금융의 외연을 넓히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선진 기술과 하드웨어를 보유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과 최고속도의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더구나 온라인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적응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술적·하드웨어적 여건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기술적, 법적, 제도적으로 탄탄한 금융인프라가 뒷받침된다면, 금융의 경쟁력제고와 시장개척을 통해 한국금융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강건한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지혜를 나누는 유익한 기회의場이 되기 바라며, 여러분의 열띤 발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